

아프간 불교 고문서 1만점 서방 유출

노르웨이 수집가 1300억에 소장물 매물로 내놔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해 탈레반 정권이 바미안 석불을 파괴하는 만행을 목격한 터라 비난의 목소리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 오히려 학자들 사이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상황이 안정될 때

이 적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이 문서들도 몇 년 안에 모두 10권의 책으로 묶여진다. 웨이엔 라이브러리는 성명을 통해 "불교관련 고문서들을 책으로

스탄은 이 문서들을 보관할 적절한 장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고문서들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96년이었다. 탈레반 정권에 쫓겨 바미안 지역까지 밀려난 사람들이 남겨놓은 곳의 동굴로 숨어들었다가 거기서 고문서들을 우연히 발견해 파키스탄으로 빼돌렸다고 한다. 그것이 다시 영국의 전문가들을 거쳐 지난 7월까지 모두 열다섯 차례 웨이엔 라이브러리로 들어갔다. 온전한 형태의 불경이 8권이며 그 중에는 세계 최고(最古)로 추정되는 불경이 들어 있는데, 대부분 종려나무 잎이나 작나무 껍질에 쓰여졌다.

最古 불경 포함 AD 1~6세기 문서 주류

탈레반 피해 숨은 동굴서 발견 빼들러

까지 노르웨이에서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웨이엔 라이브러리'의 경우 지금까지 학자들에게 소장품을 접할 기회를 주는 한편 귀중한 소장품들을 책으로 엮어왔는데, 그런 노력이 높이 평가받아 학계의 반발

되는 작업을 끝내고 아프가니스탄에 평화와 질서, 종교적 관용이 정착하는 대로 돌려줄 용의가 있으나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분석해 볼 때 불행하게도 앞으로 아프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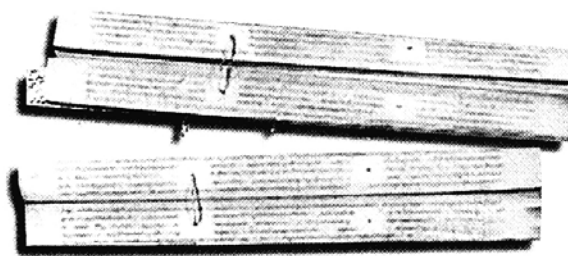
해외불교 담당 =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노르웨이의 고문서 수집가인 마르틴 웨이엔이 소장한 불교 고문서들. 대부분 종려나무 잎이나 작나무 껍질에 쓰여졌다.

탈레반 정권 통치 시절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외로 유출된 불교 관련 고문서가 1만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저명한 고문서 컬렉터인 노르웨이의 마르틴 웨이엔이 최근 자신의 소장품 모두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드러난 것. 그 중에는 '불교의 사해문서'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AD 1세기 경

의 고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대체로 1세기~6세기 쓰여진 문서들이 주류인데 그 가 원하는 가격은 7천만파운드(약 1천3백억원)이며, 가급적 노르웨이 정부가 사들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웨이엔은 이 돈을 기금으로 인권운동을 벌일 뜻을 밝혔다. 불법 유출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미국 워싱턴대학이 해독하고 있는 1세기경 아비달마 필사본.

중국으로부터의 독립보다는 자치를 열망하는 티베트의 정실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특사 2명이 9일과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고위 관계자들과 자치 허용, 달라이 라마 귀국 등을 의제로 하는 비밀 회담을 가져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홍콩의 동방일보(東方日報)가 10일 밝혔다.

동방일보는 로디 기갈렌과 켈상 기갈렌으로 알려진 웨



◇대만 자제인의회 회원 1700여의 사들은 지난 7월 화롄시에서 무료 질병 진단 및 치료봉사에 나섰다.

달라이 라마 특사

中 고위인사와 회담

동방일보 보도

싱턴과 유류 연합의 티베트 망명 정부 대표들이 9일 베이징에 도착, 중국 관계자들과 접촉을 가졌다면 회담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는 40여년만에 달라이 라마의 귀국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어 인도의 망명 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 라마 본인이 지금까지의 회담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하고 특사들이 베이징 회담을 마친후 티베트의 라사를 방문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병·사람·마음을 치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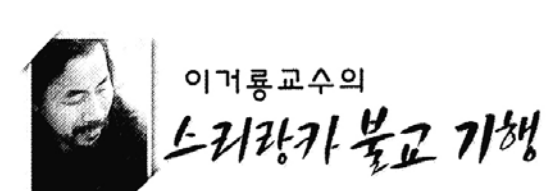
국제자제인의회, 세계 빈곤층 환자 치료캠페인

'병, 사람, 마음을 치료한다'는 가치를 내걸고 10개 국 20여 진료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자제인의회(德濟人醫會, TIMA)'가 지난 달부터 '미국 자제인의회'를 중심으로 전세계 자제인의회의 빈곤층 환자를 위한 자비의료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각국 인의회는 일정 시간과 공간을 정해 장기 의료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대만, 미국, 파라과이, 도미니카,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지역에서 동시에 1천명 이상의 의료진이 동원돼 2만여명 이상의 가난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국제자제인의

회가 동원한 역량 이외의 진료성과는 9월 하순 대만에서 열리는 국제자제인의회 정기회의 세미나에 발표될 예정이다. 1996년 창립된 국제자제인의회(Tzu Chi International Medical Association)는 대만 자제공덕회 회장 주염스님의 '의료 보편화' 이념에 따라 구성된 봉사단체다. 현재 2천여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고철 386호 10면 '한미선원 뉴욕지회 호스피스 활동' 기사 중 '계약'을 '구두 계약'으로, 서비스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일종의 6개월여 앞둔 임종'으로 바로잡습니다.



이거룡교수의 스리랑카 불교 기행

- 글 쓰는 순서
- ① 삶과 종교의 일치
- ② 야자수 잎에 새긴 불법, 깨달음(11集結)
- ③ 숲 속의 수행자들, 아란야(Atanya) 전통
- ④ 살아있는 부처님, 보리수

에는 주로 천연동굴이 많은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도시 근교에 자리잡기도 한다. 또한 이 전과는 달리 반드시 동굴에 머무는 것도 아니며, 전통적인 양식의 암자를 조성하여 지내기도 한다. 숲 속의 수행자들은 탁발을 위하여 바깥 세상과 잠시 만날 뿐, 오직 수행에만 전념한다. 탁발을 하지만, 재가자들이 있는 마을까지 가지는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장소로 내려오면, 재가자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보시한다. 음식을 받은 수행자들은 곧장 수행처로 들어간다. 탁발은 무소유를 실천하는 수행자의 상징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아란야의 수행자들은 이른 아

불교는 길의 종교다. 출가 유행(遊行)의 삶은 불교가 추구하는 '길'의 전통이다. 스리랑카 곳곳의 숲 속에는 지금도 초기불교의 유행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아란야 사나세나(Aranasana)라고 일컬어지는 이 전통은 대중과 호흡하는 불교와 함께 스리랑카 불교의 또 다른 한 축이다. 아란야의 수행자들은 숲 속에

초기불교 아란야 전통... BC 1세기 시작 탁발때 이외엔 대중과 접촉 일체 삼가

머물면서 수행에만 전념한다. 철저한 무소유의 삶으로 일관하며, 시중의 스님들과는 달리 일반 대중과의 접촉을 일체 삼간다. 불치사 뒤편에 있는 '숲 속 암자' (Forest Hermitage)와 남부 히카두와 부근의 '섬 암자' (Island Hermitage)가 규모도 크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곳곳에 소규모의 수행처가 산재해 있다. 대개는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진, 인적이 드문 한적한 숲 속에 있으며, 심지어는 수행자가 맹수로부터 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침부터 밤까지 오직 수행에만 전념한다. 물론 의외로 가해지는 특별한 규제는 없다. 간섭하는 사람도 없다. 주로 위빠사나 수행을 하며, 아란야 사나세나의 동굴 앞에는 으레 경행(經行)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매 월 초하루와 보름 등 4번의 포살(布薩)이 있으며, 보름날은 재가불교도들이 수행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도 한다. 이제 숲 속의 수행처도 여전 같지가 않다고 한다. 매잖아 아란야 사나세나도 그리운 것이 되어 산 뒤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란야 사나세나는 이미 기원전 1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적어도 이천 년 이상 지속된 셈이다. 처음

■ 동국대 연구교수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콜롬부 부근에 있는 아란야 사나세나의 수행자들'

"간다라 지역 최고 경전

아비달마 필사본 해독중"

미국 워싱턴대학이 작나무 껍질에 쓰여진 필사본 경전을 해독중이라고 'The Buddhist News Network'가 5일 보도했다.

이 필사본 경전은 간다라지방 고대어인 간다리(Gandhari, 산스크리트 파생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워싱턴대가 개인 소장가로부터 사들인 것. 워싱턴대는 아비달마(阿毘達磨) 주석서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알려진 이 필사본의 75%를 몇주내에 해독

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25%는 상당기간 동안 해독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브리타시 도서관과 공동으로 '초기 경전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워싱턴대는 1994년 브리타시 도서관이 간다라지방에서 발견한 또다른 판본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아비달마의 변천과정과 초기 사원의 교육내용 등을 상세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dhammadownload.com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경험이 바뀐다

당신은 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이기는 삶을 살기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실만을 원하십니까? 알고 싶은 열매를 누기 원하십니까? 당신은 얼마까지 자기 특색의 열매를 만들 수 있습니까? 반가운 인연은 지우고 원하는 인연을 만들어 번영의 삶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 이바타 코스는 당신을 뜻대로 사는 길을 안내합니다.

주최: 원이 2021년 11월 23일 개교 1주년 기념

선재아바타 센터 ☎ 02-362-3647 ☎ 018-206-3647 E-mail: avatara@naver.com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북이로 114-1 북이로연선 2층, 502호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8월의 태풍으로 아픔이 우리를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굳게니 의망과 용기를 갖고 일어서십시오. 내일은 행복찬 시간들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절은 가을을 향하고... 당신을 기다리는 인연의 사람과 인연에서...

원장 이영숙 합장

■ 대우, 초·재혼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분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위치 안내 <

1호선 무전역 아차 북부의 광장 우측 서울 방향 첫번째 골목으로 150m정도 직진 의원오피스텔 202호

※ 방문전 전화 약속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32)654-5411
휴대폰: 011)288-2944

불교의식(범음·범뻬), 기타 학인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정

1. 의식과정(숙성과정): 기본과정, 중급과정

2. 작법(숙성과정):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 단 작법과정은 의식과정의 기본과정을 수료내지, 동등자격자

3. 사물(12개월): 태평소(호적)

■ 모집인원: 각 반 20명(선착순)

■ 원서접수: 수시모집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団法人 **일승불교대학**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진류·지자기의 유행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 등이 발생 합니다. 수맥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행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 의수맥·지자기·지진류유형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안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행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기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순수한 경판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빛을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운림佛字체'

민아삼경8종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모금

100% 경판주사로 쓴 민아삼경 달마도

2000년 대불량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총재)

수묵소장하여 기증 고귀한 진품명품 신기·영기 방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佛자그림(수맥과 차탄특별보시!)

사업전래, 가장광화, 저문문제 부부공동 등 담당하고 고인 하서는 본 서승인이 전하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중원합회인증 100% 호적 복사본 및 유자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화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합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敎藝術文化院